



수요자 중심교육과 학생교류제도

- 경북대와 전남·전북대의 학생교류를 중심으로 -

김 법 완 | 경북대학교 학생처장

I.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학 경영은 대중 고등교육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요구되어 왔던 확장주의 철학 내지는 팽창전략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 결과 학생 수 증가에 초점을 맞춘 증과·증원 전략이 매우 중요시되어 왔고, 외형적 시설설비의 확충과 함께 종합대학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이상에 사로잡혀 왔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21세기의 대학경영 철학은 양적 성장위주의 철학보다는 질적 성장 철학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기능의 회복과 갱신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고객만족 경영이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정착한 지금 대학 또한 양적인 성장에 집착하거나, 백화점식 학과나열에 치중해 특성화를 경시하다 보면 고객인 학생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은 뻔한 일이다.

오늘날 대학간 학생교류와 관련하여 중요하

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바로 학생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관점이다. 21세기는 대학교육 대상에 대한 개념이 매우 다양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우선 대학교육 활동이 '학생 중심 학습'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고객'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도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교육대상인 학생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① 대학경영 관점에서의 고객, ② 교실 활동, 즉 고객화된 훈련이나 학습에서의 고객, ③ 봉사과 교육서비스 차원에서의 학습자, ④ 교육기간과 연령에 따른 학생 개념¹⁾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게 되면 학생경영의 개념이 도입되어 '타인을 위한 서비스' 개념에서 교육을 바라보게 되고, 고객유치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불가피하게도 된다. 예컨대 정규적인 학생의 여론 조사, 욕구 진단, 학생 시장조사, 학생 학습욕구 진단 등이 정례화 될 것이다.

1) 이현청(2000), '21세기와 함께 하는 대학', 민음사, 45.

〈표 1〉 경북대와 전남·전북대의 교류현황

학년도	경북대 → 전남대(전북대)			전남대(전북대) → 경북대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계
1999	110	109	219	110	110	220
2000	110	109	219	110	107	217
2001	109	110	219	110	110	220
2002	106	104	210	94	87	181
2003	54(20)	57(20)	151	57(14)	58(12)	144
2004	54(20)		74	60(14)		74
총인원			1,092			1,056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년간의 수험생활을 거쳐, 수험생들이 한번 대학을 선택한 다음에는 자퇴나 편입을 하지 않는 이상 선택한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 커리큘럼에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대학간 학생교류를 통해 수요자(고객) 중심의 교육을 어떻게 대학간 협력을 통해 실천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가 몸담고 있는 경북대학교와 전남·전북대학교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2. 영호남 학생교류의 결실

1) 교류사업의 추진 경과

오늘날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상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88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왕복 2차선으로 연결된 이 도로를 직접 차로 운전하여 보았거나 대구-광주간 고속버스를 이용

해 본 사람이라면 이 도로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하게 된다. 왕복 2차선으로 연결된 이 도로 하나가 바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고속도로인 것이다.

공사기간이 짧아 군데군데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도로를 오가며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는 1999년 1학기 첫 교류의 장을 열었다. 그리고 현재 2004년 1학기까지 전남대와 전북대 학생들은 경북대학교 캠퍼스를 집삼아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 되어 생활하고 있다.

1999년 1학기에 추진된 전남대와 경북대의 학생 교류는 경북대와 전남대가 학생교류에 대한 합의서와 이행협약서에 상호 동의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교류인원 110명에 등록금 전액면제와 기숙사비 전액면제, 최대 2학기 수학 가능이라는 파격적인 혜택과 함께 시작된 교류사업은 당시 불어닥친 IMF 환란과 맞물리며 학생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꾸준히 이 사업은 진행되어 안정기에 이르렀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교류사업 대상의 확장이 요구되었다. 즉, 2003년도 1학기에는 전북대학교도 함께 참여

하는데 상호 합의하게 된 것이다.

전북대학교의 참여와 함께 학생교류사업은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된다. 교류인원과 혜택부여에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전부터 교류학생에 대한 지나친 지원에 대해 대학 구상원 내부에서 불만의 의견이 없지 않았기에 전북대학교의 참여로 학생교류 규모의 대대적인 수정과 기숙사 무료입사 혜택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교류인원에 있어 전남대학교는 60명, 전북대학교와는 20명(총 80명)으로 정원이 30명 줄었고, 기숙사의 경우 무료입사 대신 신청시 입사우선권이 주어지는 형태로 바뀌었다. 대신 교류학생이 상대학교에서 수학하는 동안 상대학교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참여하였을 때, 우선권이나 인센티브가 주어짐으로써 안정기에 접어든 교류사업이 이제는 견고화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은 지난 5년간 경북대학교와 전남·전북대학교와의 교류현황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양대학에서 교류하는 학생의 숫자가 산술적으로 줄었다. 학기별 정원이 110명에서 80명으로 30명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해의 경우 연간 교류학생 정원 160명 중 14명만이 참가했다는 것은 선발자 중 포기자가 늘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 학생교류가 가지는 의미 : 지역감정의 해소

영호남지역 대학의 학생교류가 1차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상대지역의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접하도록 하고, 학생이 원할 경우 소속을 변경하지 않고 그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토록 하고 그 학점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영호남지역의 학생교류의 경우 이러한 성과 이외에도 지역감정의 해소라는 국민통합을 위한 시너지 효과까지 거둘 수 있었다.

'90년대 이후 학생운동의 방향이 민주화에서 이데올로기 통합운동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데올로기 통합의 근본은 남북한의 통합에 관한 운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감정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인 해결방안 없이 오늘날의 학생운동은 진행되고 있다. 2004년 총선결과가 말해주듯이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외형적인 민주화의 성과를 자랑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오래된 지역구도를 넘어서지 못했다. 정치인들조차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지는 않았지만, 교묘한 이미지 정치를 통해 지역구도를 고착시키고 그것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지역갈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지역 학생들을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동안 유학을 시키기 위해 영호남지역의 대학이 학생교류를 발전시킨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지역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지에 살면서 그 지역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체험을 통해서 지역감정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교류는 하루 아니면 이틀간의 상호방문인 체육인이나 예술인의 교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학생을 장기간 타지역으로 유학시키므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문화를 익히게 해 양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주체적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치인들 중에는 상대 지역민들이

“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지역갈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지역 학생들을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동안 유학을 시키기 위해
 영호남지역의 대학이 학생교류를 발전시킨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학생의 교류는 하루 아니면 이들간의 상호방문인 체육인이나 예술인의 교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학생을 장기간 타지역으로 유학시키므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문화를 익히게 해
 양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주체적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특정 정당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드러내놓고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특정 지역에서 배출된 인재가 다시 특정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만 노력하게 됨으로써 양 지역의 가교역할을 할 인재가 아무도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거짓말들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저항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앞으로 경북대학교와 전남·전북대학교가 추진한 학생 교류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이 책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전남대학교와 학생교류를 처음으로 추진했던 박찬석 경북대 진총장은 “지역감정의 문제는 장시간에 걸쳐서 대학생의 실질적인 교류를 재학생의 1% 정도로 양 지역의 대학과 교류를 시키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기숙사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기숙사에서 대구 학생과 광주 학생이 같은 방에서 1년 이상 생활하고 대학에서 같이 강의를 듣게 하면 상당한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들 학생들은 연대가 가능하고 적어도 지역감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첨병 노릇을 할 수가 있다.

이는 광주와 대구의 학생들이 서울에서 만나

같은 방에서 하숙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 학생들은 학생들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나 대구의 삶과 광주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다. 대구와 광주간의 대학생을 교환해 공부하게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 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생각될 것이나 광주 학생의 대구 생활속에서 친구들간에 깊은 인간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② 대구와 광주간에 문화의 차이(사투리의 차이)는 있어도 문화의 우열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갖고 있는 편견이 사라질 것이다.
- ③ 한 대학에서 200명 정도의 유학생은 더 많은 친구를 광주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광주로 불러들이게 될 것이고, 동질의 대학생 사이에 더욱 유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 ④ 대학생간의 교류는 지역간, 이성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것이고, 이성간의 교류는 많은 인적 결합을 만들어 낼 것이다.
- 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이므로 광주학생이 대구에서 취업을 하든, 대구학생이 광주에서 창업을 하게 되든 서로의 문화를 알게 되어 지역감정이 해소될 것이다.
- ⑥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교류를 지속해간다면 10년 후에는 전 대학생의 10%가 호남유학생, 영남유학생을 배출

“

학생을 교육하는데 있어 대학마다 엄격한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연성체제적 특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대학간 학생교류에 있어서도 이처럼 체제정비가 선행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체제로 전환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되어 지금과 같은 지역감정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3) 수요자 중심의 문화체험 기회 제공

영호남 대학간 학생교류사업의 의미는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흔히 최근 문화의 경향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탈문화, 탈지역, 퓨전의 경향이 지배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상대의 색깔을 최초로 인식하는 순간은 바로 사투리를 접하는 순간이다. 최근 신라와 백제의 황산벌 전투를 영화화한 ‘황산벌’이라는 영화도 순전히 두 지역간 사투리의 차이를 영화제작의 중요한 컨셉으로 설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경상과 전라지역의 사투리가 지니는 차이성은 우리 주변에서 영화라는 문화적 아이콘을 통해서도 쉽게 드러나고 있다. 경북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이나 이미 교류학생으로 전남대를 다녀온 학생과의 면담을 가져보면 한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학생들이 상대지역의 사투리에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는 한 지역의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 그 언어는 그 사람의 의식과 성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경상도 사

투리는 경제적이지만 투박함 속에 인정이 숨어있고, 전라도 사투리는 다소 여성적이지만 정감이 넘쳐난다. 즉, 상대지역의 말씨에 대학생들이 상당한 호감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름’의 코드에 대해 흥미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현재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는 상대 대학으로 수학하러 온 교류학생들의 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히게 하기 위해 매학기 1박 2일의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대의 경우 1학기에는 경북 동부 및 포항지역을, 2학기에는 경북 북부(안동)권을 답사시키며, 전남대의 경우 1학기에는 전북지역을, 2학기에는 전남지역(동·서부)을 답사시킨다. 그리고 답사시 교류학생뿐 아니라 상대학교에서 사귄 친구, 기숙사 룸메이트, 기숙사 사생들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케 함으로써 문화적 이해뿐 아니라 인간적인 유대를 든든히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제공이야말로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익히고 배워야 할 문화적 안목과 인적 유대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학생들은 대학을 옮기지 않고도 인생의 자산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제 학생들을 교육대상이 아니라 교육주체로 생각하고, 졸업하기 전에 다양한 교육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교류체

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3. 대학간 학생교류의 선결과제와 방향

이 글의 첫머리에서도 밝혔지만 대학간 학생교류사업은 울타리 안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의 학생교류사업은 올해로 5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이 사업이 이미 안정기에 진입해 있음을 알고 있다. 이제는 이 사업을 더욱 더 견고화시킬 시기이다. 아직까지 교류학생을 학사적 측면이나, 타 프로그램 참여지원 측면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미비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이 사업이 주는 사회적 의미는 더욱 더 커질 것이다.

먼저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점은 교류 상대대학의 전공학점을 파견대학에서도 인정해줄 수 있어야 하고, 성적평가에 있어서도 양 대학간 교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오래 전부터 특성화를 추진해와서 더 양질의 교육환경과 교수진을 갖추고 있는 대학이 있다면 그 곳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교류학생들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 학생들을 교류학생으로서가 아니라 교육 수요자로서 받아들여 자교의 학생들과 동등하게 지도하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교수들의 책임감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에서도 영호남 학생교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한 캠퍼스

에서 생활해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행정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류학생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도록 참여학생의 등록금 경감과 기숙사 제공 등 인센티브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가 줄어들자 지원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 경북대학교와 전남·전북대학교의 경우를 타산지석을 삼아야 할 것이다.

21세기 고등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폐쇄체제로부터 개방체제로의 변화이다.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의 전 과정이 유연성을 지니게 될 것이며, 가정-학교-직장이 한 교육과정의 선상에 있는 학습체인체제(learning chain system)로 전환되는 가운데 대학의 울타리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학생을 교육하는데 있어 대학마다 엄격한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연성체제(soft system)적 특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대학간 학생교류에 있어서도 이처럼 체제정비가 선행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체제로 전환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욕심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는 교육정책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대학간 학생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학교육**

김법안

경북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경북대학교 기획1부실장, 경북대학병원 기획실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학생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2편의 저서와 60여 편의 논문 등이 있다.